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정은·장영애*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소비자아동학과*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Peer Victimization

Han, Jung Eun · Jang, Young A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peer victimization. The subjects were 353 middle school students selected from two middle schools in the Incheon area. The instruments of research included the peer victimization index, the parenting behavior index,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dex, and the marital conflict inventory. The statistics used for this data were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e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ctimization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gender.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ing behavior and peer victimiza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at is, oppressive, over protective and/or permissive attitudes of the par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 victimization. Intimacy and reasonable attitud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ctimization. Also,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eer victimiza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Especially, open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er victimization while problematic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 victimizatio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 victimization. It was also found that gender, oppressive attitude, permissive attitude, open communication, and marital conflic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peer victimization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장해 가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발달해가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학교와 가정은 물론 청소년의 교육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 일탈행위를 일삼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발달과 인간관계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가청소년 위원회(2006)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유해환경점측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8.4%가 급우나 또래로부터 욕설이나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전체의 28.3%가 학교폭력(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Olweus(1978)의 정의이다. Olweus는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때의 부정적인 행동이란 폭행이나 구타뿐 아니라 위협하는 것,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 따돌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말한

다.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또래로부터 빈번하게 언어적·신체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또래학대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고, Smith와 Sharp(1994)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임의 학대로 보았다.

국내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등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나,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연구들이 Olweus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weus의 정의에 근거하여 또래괴롭힘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될 때, 그 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한다고 정의하도록 한다.

한편, 최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이점숙·유안진 1999), 기존에 이루어진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 Olweus(1993)는 또래괴롭힘 피해 학생에 대해 비교적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가해지는 공격을 '직접적 괴롭힘'이라 하고 사회적 고립 및 집단으로 부터의 의도적 배제를 '간접적 괴롭힘'이라 구분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괴롭힘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mith와 Sharp(1994)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간접적 괴롭힘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괴롭힘'의 예로 때리기, 발로차기, 소지품손상 등을 들었으며, '언어적 괴롭힘'에는 별명 부르기, 모욕하기, 반복적인 놀림을, '간접적 괴롭힘'으로 나쁜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등을 예로 들었다. Crick와 Grotpeter(1995)의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형태의 괴롭힘을 '관계상의 괴롭힘'으로 보고,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인 괴롭힘을 합쳐서 '명백한 괴롭힘'으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 등을 '친사회적 행동소외'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소외로 나누어 또래괴롭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

기로 하겠다.

한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반복적으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는 자아존중감이 낮고(Perry et al. 1988), 또래로부터 거부되어 친구가 없으며, 불안, 외로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어 등교거부에 이르게 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도현심 1999; 양원경·도현심 1999; Blou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또한 괴롭힘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며(Olweus 1993),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몇 년 후에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Olweus 1977, 1978)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받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최초의 환경으로 이 속에서 자녀는 부모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장 처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를 익히는데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관련변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떠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이 되는지 분석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

모-자녀간 의사소통이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응능력과 바람직한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안정적이고 자신을 가치있게 여겨,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Perry & Egan 1998). 반면 부모와 거부·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거나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Finnegan et al. 1996, 1998; Olweus 1993; Troy & Sroufe 1987).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부모-자녀의 관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3; Smith & Sharp 1994). 그리고 잘못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공격에 대한 피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1999). Smith와 Sharp(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 또는 요구에 민감하지 못할수록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피해 집단이 되기 쉽다고 보고했다. Olweus(1993)는 부모와 거부·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학생은 불안하고 취약하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했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때 자녀가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승인을 받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몇몇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의 과보호와 권위주의적 통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숙·이춘아 1998), 또래괴롭힘 피해 학생의 부모는 더 거부적, 제재적이거나 허용, 방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온정·수용적일 때 청소년은 또래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선·심희옥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화 및 자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매스컴의 발달과 가족 구조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간 대화의 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등으로 의사소통 형태가 역기능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박연수 2003). 이러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부재는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지만(박옥임 1994; 민하영 1991),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은진 2003; 권복순 2000). 또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송연경 2003; 장미숙 1999).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대화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원만한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연숙 1991). 서명성(1998)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긍정적인 대화가 바람직한 교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와 청소년의 부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노성향(1995)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불안과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고 했다. 즉, 부모-자녀간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대립이나 갈등을 줄이고,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부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가족 상호작용 중 부부관계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듯이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의 발생은 예외일 수 없으나, 부부갈등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 가족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갈등은 부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Emery 1982).

부부갈등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배우는 자녀들이 부모간의 갈등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정서적 위협이다. 그리고 자녀가 이를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은 저해되고, 자녀는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보인다(이민식 1999). 자녀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모의 화를 느끼거나, 부모 중 한사람이 다칠까봐 염려하거나, 자신들의 부모가 이혼을 할까봐 두려워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며,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Emery 1988; Grych & Fincham 1990). 또한, 부부갈등은 행동장애, 불안, 공격성 등을 포함한 자녀의 부적응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에 영향을 주며,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et al. 1985;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이처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에도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련연구는 많지 않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족의 분위기나 가정 내 폭력을 또래괴롭힘과 관련짓는 연구들(김혜원·이해경 2000; 심선보 2000)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가족의 분위기나 가정 내 폭력을 부부관계 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어,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본 박보경(2002)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청소년의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교우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미선 2004; 김승봉 2005),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행동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기숙 1982; 정미자 1995).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춘아 2001). 또한 청소년의 성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 연구들도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지만(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박경숙·손희권·송혜정 1998), Perr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8)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의 피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이윤중 1999). 이처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모-자녀관계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 속에서 적지 않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와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 2, 3학년 남녀학생 353명인데, 이들은 인천광역시 소재 2개의 중학교, 12개 반에서 표집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1, 2, 3학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은 청소년기의 초기로 부모 및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 부모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부부

갈등을 지각하여 표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178	50.4
	female	175	49.6
Grade	1st	119	33.7
	2nd	119	33.7
	3rd	115	32.6
Father age	39 or less	34	9.6
	40-44	149	42.2
	45 or more	170	48.2
Mother age	39 or less	103	29.2
	40-44	172	48.7
	45 or more	78	22.1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4	9.6
	high school	170	48.2
	college or more	149	42.2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0	8.5
	high school	216	61.2
	college or more	107	30.2
Family economic status	high	13	3.7
	middle	297	84.2
	low	43	12.2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측정 척도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tpeter(1996)의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수정·변안한 임지영(1998)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예 ;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한다)을 측정하는 5문항, 명백한 괴롭힘(예 ; 나를 때린다)을 측정하는 5문항, 친사회적 행동(예 ;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나를 도와준다)소외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관계상 괴롭힘이 .82, 명백한 괴롭힘이 .87, 친사회적 행동소외가 .85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혜영(2000)이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김혜영은 Baumrind(1967)이론에 기초하여 김지신(1996)이 개발한 양육행동척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aber와 Olsen(1997)의 척도 두 가지를 토대로 친밀감, 자율성, 통제, 방임에 관한 문항을 보완하여 재구성 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늘 그러는 편이다)로 응답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8, .83, .73, .67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민하영(1991)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요인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늘 그러는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개방형이 .91, 문제형이 .77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Grych와 그의 동료(1990)가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한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정도,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등을 자녀가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총 4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늘 그러는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도구의 실시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인천광역시 중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에서 1, 2, 3학년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학급에서 학생들이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Table 2. Peer victimiza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Relation victimization			Explicit victimization			Alienation from pro-social behavior			Total victimization		
	M	SD	S	M	SD	S	M	SD	S	M	SD	S
Grade	1st	1.41	.50	1.38	.59	2.71	.82	1.84	.49			
	2nd	1.39	.56	1.38	.73	2.63	.79	1.80	.52			
	3rd	1.40	.54	1.30	.52	2.59	.67	1.76	.43			
	F		.049		.657		.782		.645			
Gender	male	1.41	.56	1.53	.71	2.76	.74	1.90	.51			
	female	1.40	.50	1.17	.45	2.53	.78	1.70	.42			
	t		.186		5.765***		2.754**		3.979***			
Father age	39 or less	1.49	.55	1.41	.63	2.60	.93	1.83	.51			
	40-44	1.45	.58	1.39	.67	2.69	.77	1.84	.52			
	45 or more	1.37	.49	1.38	.67	2.66	.76	1.80	.48			
	F		1.927		1.822		.699		2.098			
Mother age	39 or less	1.47	.54	1.34	.55	2.61	.82	1.80	.46			
	40-44	1.37	.53	1.33	.61	2.70	.72	1.80	.48			
	45 or more	1.43	.54	1.42	.80	2.52	.80	1.78	.55			
	F		.758		.214		.787		.018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36	.45	1.57	.94	2.67	.85	1.86	.55			
	high school	1.41	.55	1.31	.52	2.65	.75	1.79	.43			
	college or more	1.37	.50	1.28	.25	2.53	.76	1.72	.45			
	F		.282		1.562		.694		.837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38	.51	1.45	.82	2.58	.75	1.80	.55			
	high school	1.41	.54	1.34	.62	2.65	.77	1.80	.48			
	college or more	1.41	.48	1.32	.49	2.77	.87	1.83	.46			
	F		.590		.436		.927		.766			
Family economic status	high	1.41	.51	1.24	.57	2.50	.97	1.72	.49			
	middle	1.38	.52	1.33	.61	2.67	.74	1.79	.46			
	low	1.57	.62	1.53	.72	2.58	.86	1.89	.59			
	F		2.393		2.193		.480		1.029			

p<.01, *p<.001

35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관계 및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간의 관계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 총점($t=3.97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인 명백한 괴롭힘($t=5.765, p<.001$), 친사회적 행동소외($t=2.754, p<.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소외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상 괴롭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학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 총점과 하위 변인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부모-자녀 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 attitude and peer victimization

	Relation victimi- zation	Explicit victimi- zation	Alienation from pro-social behavior	Total victimi- zation
Intimacy · Reasonable	-.156**	-.110*	-.219*	-.222**
Oppresiveness	.292***	.259***	.152**	.300***
Overprotection	.249***	.230***	.076	.232***
Permissiveness	.210***	.145**	.154**	.222***

* $p<.05$, ** $p<.01$, *** $p<.001$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친밀·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친사회적 행동소외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219)을 나타냈고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 총점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친밀·합리적 태도를 보일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경험함을 알 수 있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소외, 또래괴롭힘 총점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r=.249, p<.001$), 명백한 괴롭힘($r=.230, p<.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친사회적 행동소외와는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r=.210, p<.001$), 명백한 괴롭힘($r=.145, p<.01$), 친사회적 행동소외($r=.154, p<.01$)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가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peer victimization

	Relation victimi- zation	Explicit victimi- zation	Alienation from pro-social behavior	Total victimi- zation
Open communi- cation	-.203***	-.138**	-.219***	-.250***
Problematic communi- cation	.264***	.153**	.136*	.236***

* p<.05, ** p<.01, *** p<.001

Table 4에 의하면,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관계상 괴롭힘($r=-.203, p<.001$), 명백한 괴롭힘($r=-.138, p<.01$), 친사회적 행동소외($r=-.219, p<.001$)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관계상 괴롭힘($r=.264, p<.001$), 명백한 괴롭힘($r=.153, p<.01$), 친사회적 행동소외($r=.136, p<.05$)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자녀간 자유로운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경험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rital conflict and peer victimization

	Relation victimi- zation	Explicit victimi- zation	Alienation from pro-social behavior	Total victimi- zation
Marital conflict	.258***	.214***	-.075	.148**

** p<.01, *** p<.001

Table 5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관계상 괴롭힘($r=.258, p<.001$), 명백한 괴롭힘($r=.214, p<.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행동소외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를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4.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통제와 방임적 양육태도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그리고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의 하위변인 중 먼저, 관계상 괴롭힘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beta=.233, p<.001$)와 부부갈등($\beta=.159, p<.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관계상 괴롭힘에 대한 설명력은 17.1%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방임적으로 양육 하고,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를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또래에 의한 관계상 괴롭힘을 많이 경험했다.

명백한 괴롭힘은 성별($\beta=-.268, p<.001$),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175, p<.05$), 방임적 양육

Table 6.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peer victimization

	Relation victimization		Explicit victimization		Alienation from pro-social behavior		Total victimization		
	B	β	B	β	B	β	B	β	
Gender(male=0)	.018	.017	-.337	-.268***	-.228	-.148**	-.182	-.188***	
Parenting attitude	intimacy reasonable	-.122	-.148	-.114	-.118	-.096	-.081	-.046	-.062
	oppressiveness	.079	.103	.159	.175*	.130	.117	.123	.175*
	overprotection	.112	.126	.109	.105	-.041	-.033	.059	.074
	permissiveness	.175	.223**	.130	.142**	.123	.109*	.143	.201***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070	-.118	-.076	-.109	.114	.132	-.087	-.160*
	problematic communication	.046	.057	-.079	-.083	.019	.016	-.004	-.006
Marital conflict	.250	.159**	.214	.116*	.373	.165**	.030	.021	
R ²	.171		.198		.122		.191		
F	7.011***		8.416***		4.707***		8.022***		

* p<.05, ** p<.01, *** p<.001

태도($\beta=.142$, $p<.01$), 부부갈등($\beta=.116$,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명백한 괴롭힘을 적게 받았으며, 부모가 통제적,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가 부부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지각할 때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사회적 행동소외는 부부갈등($\beta=-.268$, $p<.001$), 성별($\beta=.175$, $p<.05$),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beta=.142$, $p<.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소외에 대한 설명력은 12.2%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부간의 갈등상황을 심각하게 지각할 때, 남학생일 때, 부모가 방임적으로 양육 할 때, 또래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소외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부갈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 총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방임적 양육태도($\beta=.201$, $p<.001$), 성별($\beta=-.188$, $p<.001$),

통제적 양육태도($\beta=.175$, $p<.05$), 개방형 의사소통($\beta=-.160$,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또래괴롭힘 총점에 대한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방임적이며 통제적으로 양육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증가하며, 여학생이고, 부모-자녀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이,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방임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그리고 개방형 의사소통,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계되는 변인 중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갈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관련

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고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2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자녀관계(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소외,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전체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상 괴롭힘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Boulton과 Underwood(1992)의 연구와 일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인 괴롭힘은 더 많이 경험하지만, 관계상의 괴롭힘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이점숙 · 유안진 1999;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들이 치기, 밀기와 같은 명백하게 공격적인 행동과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여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Olweus 1993; Smith & Sharp 1994)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학력 등 가정 관련 변인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이춘아 2001; Olweus 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은 부모나 가정에 관계되는 객관적인 지표 변인 보다는 구체적 부모-자녀관계나, 청소년의 특성에 관계되는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통제, 방임적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소외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친밀·합리적인 양육태도는 관계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소외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엄격한 제재는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Eisenberg & Fabes 1998),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와 연결되고, 또래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하기 쉽다는 선행연구들(Finnegan et al. 1998; Fuhman & Holmbeck 1995)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 이거나 거부적, 통제적일 때 자녀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향이 많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춘아 2001; 이숙 · 이춘아 1998; Olweus 1993; Finnegan et al. 1996).

한편, 부모가 친밀·합리적으로 양육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의 친밀하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또래 승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낮춘다(Perry et al. 1988)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개방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Bell et al. 1985; 유지영 2004)와 일치한다.

셋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친사회적 행동소의를 제외한 모든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과 관계없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독립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며,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이민식(199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부부간 갈등에 노출되는 것은, 또래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에 무기력하고 무감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관계, 부부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별은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소외에 영향을 미쳐, 남학생이 신체적·언어적 괴롭힘과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연구와 예방지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양육태도 중에서는 방임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방관적으로 양육하거나 지나치게 통제를 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갈등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갈등상황의 노출이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여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관련 변인들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설명력은 12%~20%정도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 때, 자녀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모교육을 병행한 또래 괴롭힘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 1, 2, 3학년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 부부갈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가정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또한 한 지역만으로 연구대상을 국한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을 늘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변인, 청소년의 특성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부모-자녀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며,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병행한 또래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실태 조사. 청소년백서 279-280.

권기숙(1982)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 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0, 5-37.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김승봉(2005)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원·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4(1), 45-64.

노경선·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노성향(199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1999)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손희권·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수(2003)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대화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옥임(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서명성(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선(2004)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경기북부지역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승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선보(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존증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유지영(2004)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성숙도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중(1999) 왕따 리포트-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 방안 까지. 서울: 우리교육 19-51.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미숙(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은희(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은진(2003) 일반계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Baber BK, Olsen JA(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287-315.

Barnes H,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88.

Bell NJ, Avery AW, Jenkins D, Feld J, Schoenrock CJ(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14, 109-119.
- Blouton MJ,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rick NR, Grotpeter J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Cummings EM, Iannotti RJ, Zahn-Waxler C(1985) The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Davies PT, Cummings E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isenberg N, Fabes R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York: Wiley, 701-778.
- Emery RE(1982) Internati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E(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sage.
- Finnegan RA, Hodges EVE, Perry DG(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Finnegan RA, Hodges EVE, Perry DG(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Fuhman T, Holmbeck GN(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Grych JH, Fincham F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Olweus D(1977)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in adolescent boys: two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f ratings. *Child Development* 48, 1301-1313.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press.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and J. B. Asendro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315-3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rry DG, Egan SK(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Perry DG, Kusel SJ, Perry L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Smith PK, Sharp K(1994) *School bullying : insights and perspective*(Eds.). London: Routledge.
- Troy M, Sroufe L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